

'GS+현대' 누가 이겨?… 대형건설사, 지방정비사업 '컨소' 봄

대형건설사들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대형 도시정비사업을 따내기 위해 힘을 합치는 걸로 늘고 있다. 컨소시엄 장점을 활용해 수주는 쉽게 위험은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최근 정비사업에서 건설사끼리 컨소시엄을 통해 수주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은 지난 19일 사업비가 1조원에 육박하는 9528억원 규모 서울 서이문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따냈다.

컨소시엄의 장점은 대규모 단지를 단독으로 공사하는 부담은 덜면서 수주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자 맡은 지역에 나눠 공사를 할면서 인력 등 공사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특히 사업 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컨소시엄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방 정비사업에서도 컨소시엄이 수주를 훔쳤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대전이다. 대전은 노후 아파트가 많지만 공급은 적어 새집 수요가 높다. 특히 최근에 대전 동구와 중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개발

대규모단지 단독 부담 ↓수주 강점
입찰 보증금·미분양 위험도 분산
대전 이달 4곳 중 3곳 공사 따내

지방사, 브랜드파워·자금력 밀려
수도권 커녕 지방서도 고전 예상

발표 및 재건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달 4개 정비사업장 중 3곳에서 10대건설사 컨소시엄이 공사를 따냈다는 점이 흥미롭다. 지난 2일 도마변동 5구역 재개발(7869억원)에서 GS건설과 현대건설이 두산건설을 물리치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지난 4일에도 도마변동 13구역(7255억원)에서 대우건설과 DL아엔씨가 동부건설을 제쳤고, 지난 12일 도마변동 4구역(9212억원)에서 롯데건설과 현대엔지ニア링이 힘을 합쳐 DL건설을 꺾었다.

대량건설사들로선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출혈 경쟁을 하느니 컨소시엄을 통해 힘을 합쳐 손쉽게 사업을 따내자는 의도다.

한 10대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지방 대형 사업장도 입찰 보증금이 수백억원 대까지 올랐다. 컨소시엄으로 하면 이를 미분양 위험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 중견건설사들은 울상이다. 브랜드에서도 시공능력평가에서도 밀리는 상황에서 하나로 뭉친 대형건설사들을 상대하기란 쉽지 않다. 도마변동 4구역에서도 충청지역 건설사들이 현장 설명회는 참여했지만 결국 입찰제안서를 내진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을 따내는 지방 사업장 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 건설사들로선 협한한 상황이 됐다"며 수도권은 진출은커녕 지방에서도 고전하는 추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동영 기자 westeo@sporbiz.co.kr



롯데건설 제공

"탄소중립委 의미·주요기업 경영 움직임… ESG 자세히 배울수 있는 알찬 교육"

인터뷰 | '서울대 ESG전문가 과정 1기' 김태상 KCL센터장

ESG 행복경제연구소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동대학 환경대학원이 주관하는 '제1기 ESG전문가 과정(ESG Executive Education)'이 수료식을 향해 순항 중이다.

지난 3월 출범식 및 첫 강의를 시작으로 4월에는 'ESG 우수지자체' 현장 답사와 6월 조별 사업 발표 등 이론과 현장을 아우르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첫 'ESG전문가 과정'은 등록한 1기 수강생들의 평가와 소감은 어떠할까. 김태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센터장의 얘기를 들어봤다.

김 센터장은 ESG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이번 교육과정을 등록한 사례다. 그는 "회사에서 교육과정에 지원할 기회를 준다고 하여 지원했다"며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는 ESG가 어떤 개념의 약자인지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수준이었다. 왜 원장님의 ESG를 강조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기억

수강전 ESG 인터넷서 찾아보는 수준
이산화탄소 양 직접 측정·변화 관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실체적 접근법 인상

건설분야도 EPD 인증 요구 기업 늘어
ESG, 메가트렌드로 자리매김 느껴져

최근 조직 개편서 관련 경영팀 신설
올해부터 '기업 파트너십' 구축 돌입

했다.

김 센터장은 "강의의 접하기 직전 인터넷을 통해서만 ESG를 접했을 때는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애기로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개설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직접 측정하고 변화를 관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서 ESG가 구체화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적 접근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정하고 변화를 관찰하는 실질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서 ESG가 구체화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적 접근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이어 "2050 탄소중립위원회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의미, 블록체인의 CEO와 메시지와 주주들의 관점에서의 ESG, 국내주요기업들의 ESG경영 움직임 등에 대해 자체해 알 수 있는 교육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참고로 이번 교육과정에 초빙된 교수진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환경)를 비롯해 서울대 박인권·김경민 교수(사회), 서울대 김화진·이우종 교수(케비언스) 등 각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김 센터장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ESG가 메가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느낀 사례를

문자 "KCL에서 재화재분부 내진센터에서 지진발생시 교량이나 주요 건물 등 기반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내진 및 면진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건설분야에서도 최근에는 EPD(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환경성적표지인증)을 요구하는 건설업체가 증가해 EPD인증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 센터장은 교육과정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내용은 "ESG에서 환경분야 수치 측정 및 에너지 저감량 측정 등에서는 KCL이 불확도를 포함하고 국제적으로 소급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가지고 있어 관심이 간다"며 "또한 과거에 신기술, 신제품 출시면에서만 본 스마트 시티를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한 ESG 미래도 개시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이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최근 KCL도 ESG를 강조하며 신년 조직개편에서 ESG경영팀을 신설하고 직원 ESG개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또, KCL의 고객들에게 ESG경영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효율적으로 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올해부터 ESG 기업 파트너십 구축을 시작했다"며 "KCL의 시험평가 인프라와 전문 연구개발 인력을 지원해 각 업체에 요구되는 기술개발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곁으로 김 센터장은 이번 교육과정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ESG에 관한 최신 트렌드와 이론적 지식에 대해 알기 쉽게 강의해주셔서 전문가가 갖춰야 할 관련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며 "실제 국내 대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ESG경영 사례를 해당 기업 담당임원의 설명으로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김 센터장은 "다만, 이번에는 코로나 국면이나 힘들었겠지만, 국내기업 탐방이나 외국사례 탐방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미리 참가자를 모집하고 내실있게 진행하는 것은 보완해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용 기자 d0728@sporbiz.co.kr

송악농협 기(氣)찬 흑염소진액

수증·대포·방사증·하나·검은보물 '흑연' 송악농협에서 전통 방식으로 제작해 달려습니다!

흑염소 함량 86% 10여가지 한방 원재료 홍금레시피!!

송악농협 설립(設立) 60주년 기념 60% 초특가 할인행사

2박스(2개월분) 160,000원 59,800원

* 송악농협의 신뢰가 바로 제품의 신뢰입니다!

2세트(4개월분) 구입시 1박스(1개월분)를 더 드립니다!



송악농협 기찬 흑염소진액

국내산 흑염소 출액 86%

지역에서 키운 흑염소와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전통 원료를 배합해 48시간 이상 장 시간 농축한 진액으로 맛과 영양이 진하고 담백합니다.

전통한방원료로 만들었습니다

자연방목 토종 흑염소의 생동감이 그대로! 구수한 맛이 더욱 진하고 담백합니다. 산기슭을 뛰놀던 흑염소는 흑염소 86%의 10여가지 전통 한방재료로 최고의 레시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흑염소'의 좋은 성분이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흑염소는 양해진 몸에 힘력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건강에 도움을 주는 보양식입니다. 송악농협 기찬 흑염소진액은 은물에 좋은 산야초·풀·나무의 뿌리부터 열매까지 먹고 자란 흑염소로 만듭니다. 자연 속에서 좋은 것을 먹고 자란 흑염소에는 좋은 성분이 가득하고 특히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몸을 보호하는 한편, 지방은 적어 소화가 잘 됩니다. 또한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건강한 체온을 지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고령에 계신 연로한 부모님
- 체력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쌓인 직장인
- 밤울증에 고민하는 수면 장애
- 활기찬 생활을 하시고 싶은 분
-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고 싶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권합니다.

<송악농협 기찬 흑염소진액> 이런점이 좋습니다

흑염소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 칼슘, 철분 등이 많이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송악농협 기찬 흑염소진액은 자연방목 토종 흑염소의 육질이 통째로 들어간 흑염소 앤지스입니다. 청정지역의 기운을 고스란히 담아낸 진액으로 1일 1~2회 식전에 섭취하면 좋습니다. 토종 흑염소와 함께 전통 원료를 배합해 흡수율과 영향력을 높였으며 구수한 맛이 진하고 담백하게 전해집니다. 가마솥 전통방식으로 장시간 농축하는 과정에서 지방을沥려버렸기 때문에 특유의 비린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맛이 깊掴한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잎맛이 까다롭고 비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잘 마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르신까지 효과가 좋습니다



1개월분

80ml X 30포(2,400ml)

원재료 및 함량

흑염소 86%, 흥삼농축액, 식물혼합추출물, 시자발악축추출물, 당귀농축액, 천궁농축액, 숙지황농축액, 작약농축액, 구기자액스, 인삼열매농축액

www.drdream365.com

문의 1800-6639

입금계좌<(농협) 301-0236-7453-61 (주)더드림홈쇼핑>

(신용카드 무이자 5개월 가능)

(예금 4,000원 소비부과)